

0612 - 환영만찬 말씀

한국에서 개최되는 WFB대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먼 길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을 맞이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내심 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각자 자국에서 부처님이 오신 날을 찬탄하며 보낸 즐거운 시간이 금번 대회 내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개회식과 점등식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께 작은 공양을 올리는 자리입니다. 행사 일정의 관계로 한국 불교의 전통 공양방식으로 준비하지 못함이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겠습니다.

WFB한국대회가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회향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불교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소중하게 새기고, 한국 불교의 발전과 세계 불교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의 피로를 푸시고 환담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